

# 내년도 대학수능 20,557명 응시

## 재학생 1만7,159명 · 졸업생 3,087명 등 전년비 507명 감소

전라북도교육청은 8월 24일부터 8일 까지 실시된 2018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 결과 전북에서 총 2만557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올해 원서 접수 인원은 2017학년도에 비교해 507명이 감소했고 재학생 응시자는 880명 감소한 1만7,159명이며 졸업생은 154명 증가한 3,087명, 검정고시 응시자는 19명 증가한 311명이다.

영역별 지원 현황을 보면 국어영역 2만521명, 수학영역 1만9614명(38.9%), 나형(A형) 1만985

명(61.1%), 영어영역 2만435명, 한국사(필수) 2만557, 탐구영역 2만602명 [사회탐구 1만41명(50.2%), 과학탐구 9635명(48.2%), 직업탐구 327명(1.6%)], 제2외국어/한문 2175명(10.6%)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전북지역 수학 가형과 수학 나형에 대한 지원 비율은 0.64:1이고 전국 수학 가형과 수학 나형에 대한 지원 비율은 0.49:1로 올해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도교육청에서는 11월 16일 수능시험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미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6개 시험지구 62개 예비시험장을 대상으로 1차 점검을 실시했다.

1차 점검 결과를 토대로 11일부터 22일까지 2차 점검에 나선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대학수능능력시험 원서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각 고등학교에 막바지 수시 지원에 따른 대학별고사 준비와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에 대비하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지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해은 기자

## 5기 혁신학교 21교 재지정 평가

전북도교육청이 지난 2015년 지정한 제5기 혁신학교 21교를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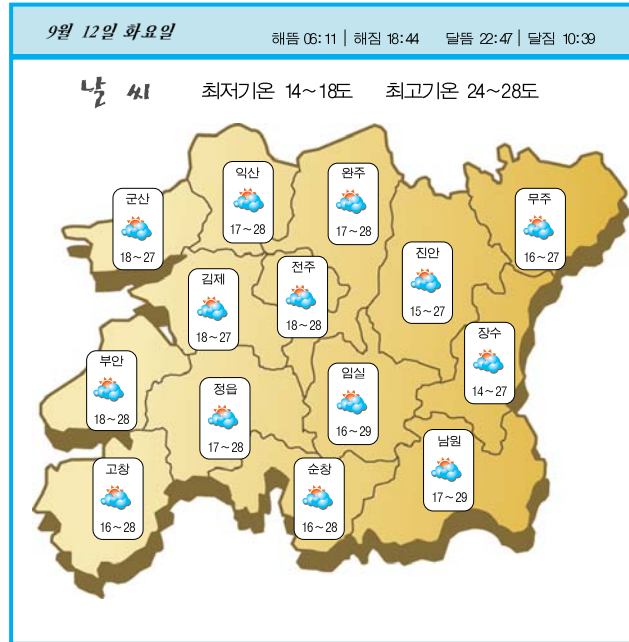
이번 평가는 혁신학교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1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초등학교 12교, 중학교 7교, 고등학교 2교 등 총 21교가 대상이며 ▲학교 문화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 ▲학교자치 등을 종합평가하게 된다.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현장을 찾아가는 관찰평가(정성평가)와 혁신학교 효과성 분석 문항을 활용한 만족도 설문평가(정량평가)로 이뤄진다.

평가위원회가 작성한 학교별 종합평가 결과표는 혁신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중순에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정해은 기자



# 3D프린팅 · 사물인터넷 등 신성장동력산업 새싹 틔운다

## 전주시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신성장동력산업 관련 벤처창업기업 육성 위한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전주시가 3D프린팅과 사물인터넷(IoT) 등 신성장동력산업 관련 벤처창업기업들이 투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섰다.

전주시와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서문산성, 이하 진흥원)은 11일 전주 JS호텔 세미나실에서 서우엠에스와 ㈜아원 등 전주 액셀러레이터 운영사업에 참여하는 8개 기업과 엔젤투자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투자자 유치 설명회 및 전주액셀러레이터 데모데이 행사를 가졌다.

전주 액셀러레이터 운영사업은 지역 내 창업 7년 미만의 우수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해 보육과 소액 투자, 초기 R&D(기술개발)자금 지원 등 집중 육성해 생존율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 진출의 기회를 제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산업 경제 발전을 이끌도록 만들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전주시와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서문산성, 이하 진흥원)은 11일 전주 JS호텔 세미나실에서 서우엠에스와 ㈜아원 등 전주 액셀러레이터 운영사업에 참여하는 8개 기업과 엔젤 투자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투자자 유치 설명회 및 전주액셀러레이터 데모데이 행사를 가졌다.

또, 기업성장 가능성과 투자 타당성을 검증 받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개선방안을 찾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시와 진흥원은 현재 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해 대한민

국 대표 크라우드 펀딩 운영 기업인 와이즈(주)와 함께 온라인 투자자를 모집중이며, 향후 투자전문위원회의 검증을 마친 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전주지역 업체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중국 인민일보문화전매유한공사 한국대표처와 함께 국제투자유치도 계획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 기초학력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실시

전주교육지원청은 '미래형 인재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주제로 전북대학교 박세훈 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기초학력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연수에 전주 관내 중학교 교감, 연구부장교사, 기초학력 업무담당 교사 약 1백여 명을 대상으로 2017년 하반기 기초학력 담당학생들의 지원 방향 정립을 위하여 한국교육학회 부회장 및 한국교육정책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교육계에 많은 재자를 배출한 전북대학교 박세훈 교수로부터 미래형 인재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주제로 강의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전북대학교 박세훈 교수는 4차 산업혁명시대(제2차 정보혁명)를 맞이하여 기초교육의 중요성, 타인과 더

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민주시민 육성, 세계 시민교육과 호의인간, 타인에 대한 인간애인 아프리카의 우분트 정신을 강조했으며 학교는 배움·관계·소통·만남·대화의 장소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래형 인재는 남이 관심 갖지 않은 직업을 선택할 줄 알고 하고 싶은 일을 즐겨 하는 사람이며 독서하는 습관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항근 교육장은 연수에 참가한 교사들에게 기초교육과 학력신장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교육장으로서 학교에 응원과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지난 4월과 5월에도 기초학력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 바 있다.

/정해은 기자

## 전국과학중점학교 체험활동 포스터 발표 대회 성료

군산제일고등학교(교장 정민숙)에서 주최, 주관하는 '제2회 전국과학중점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포스터 발표 대회'가 지난 9일 교내에서 대회를 마쳤다.

교육부 지정 과학중점학교는 전국에 1백개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대회 참가 대상은 전국과학중점학교 1학년이다.

지난달 1일부터 18일까지 접수된 23개교 작품이 한자리에 모여 각 학교에서 진행된 창의적 체험활동을 독창적이고 창의적으로 재해석하여

만든 작품을 뽐내는 자리이다.

이번 대회의 후원은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 전라북도교육청, 군산교육지원청, 군산시,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군산대학교이며 4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졌다.

대회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장은 작품들이 매우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작품들이 많았으며 대회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의미 있는 대회라고 호평했다.

/군산=김관곤 기자

